

빗썸
기테크노미

2022.09.01
목요일

가상자산
채굴
시세

갑론을박 계속되는 가상자산 채굴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서 채굴기를 기반으로 블록을 증명하는 PoW(작업증명) 방식은 가상자산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비트코인이 PoW 방식으로 블록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굴 시장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채굴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한 상황인데요. 환경에 근거해서 채굴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듭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약 145TWh(테라와트시)라고 하는데요. 이는 풍력 발전기 2400대를 매년 새로 증설해서 얻는 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등 여러 제도권 기관에서는 가상자산 채굴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명인사들 역시 가상자산 채굴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는 "비트코인은 그 어떤 수단보다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 산업의 특수성을 들면서 채굴 시장은 환경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블랙아웃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아직 현실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과하게 많아져도 전력망에 과부하가 생겨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태양, 풍력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시간대별 생산량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채굴 시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전기 산업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채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대별 생산량 변동성이 큰 태양 및 풍력 에너지 등의 비효율성을 채굴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기료가 싸면 채굴했다가 비싸지면 언제든지 바로 끌 수 있는 부분이 채굴기의 특징점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기존 전기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에 따르면 태양 에너지에 배터리 기술을 접목하여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에너지 활용도를 40~90%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 게이츠 창립자는 “비트코인 채굴이 친환경 에너지 활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아간다면 채굴이 용인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감사관 사무실도 최근 뉴스레터 서비스를 통해 “채굴시설은 다른 제조시설이나 산업용 화학공장과는 달리 그리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이외의 관점에서도 채굴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엇 블록체인, 그리니지, 코어 사이언티픽,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헛8 등은 최근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사가 비트코인 채굴로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시장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풀 운영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사이테크는 당초 카자흐스탄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클린스파크 등 여러 채굴 업체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소재의 가상자산 채굴 업체 사토 테크놀로지스의 패니 필립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현재 약세장은 채굴 업체를 위한 시장”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오히려 채굴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토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일부 채굴 업체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채굴 시장은 현재까지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

서고 있습니다. 아직 논쟁 사항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이러한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채굴 분야는 스스로의 유용성을 대중에게 입증하고, 규제권은 가상자산 산업과 대중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